

년까지 실시되고, 그 후의 방침은 다시 검토하기로 되어있다.

체르노빌사고 직후 후생장관이 TV의 스포트 정보에 몇번 등장하여 영향이 적은 것을 호소하고 핫라인의 연락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며, 또 의사로 부터의 문의가 많았기 때문에 의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설명회도 가졌다.

원자력발전소는 교육계와 건강업계(의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국민학교, 중학교에는 문교부의 허가를 얻어 EDF에서 직접 자료를 보내고 있는데, 자료의 견본중에서 학교측이 선택하는 형식이다.

프랑스에서는 이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사회과에서 원자력을 배우고 있었다. 그 세대가 지금은 청년층을 형성하고 있어서 구주의 다른

나라와 달리 청년층에서 반대가 적은 것은 그와 같은 노력이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견학회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과의 교사들 중에는 원자력을 반대하는 교사도 있으나 견학회를 취소시키거나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강요하는 일은 없다. 개인적으로는 반대해도 학생을 인솔하여 견학회에 참가하며, 그 결과 생각이 바뀌는 교사도 있다.

프랑스 여론의 반응은 대체로 냉정하고, 成熟社會의 반응을 보이는데, 원자력시설 주변에서 기형아의 출산이라든가, 유전적 영향 등 신경질적인 반응은 없으며, 또 예기치 못한 피해나 그것을 보상한 사례도 없다.

特輯 世界各國의 原子力PA와 輿論調向

西獨

西獨의 原子力PA狀況

- 고아레벤施設을 一般에게 公開 -

原子力發電設備容量 :	2,128.5萬KW
運轉基數 :	20基
總發電電力量에서 占하는 比率 :	36.6%

現 況

체르노빌사고후 1987년 1월에 연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어 원자력 추진의 콜정권이 기독교민주동맹(CDU/CSU)과 자유민주당(FDP)의 연립으로 계속 집권하게 됨에 따라 추진의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이 선거에서 전보다 표를 많이 얻은 자유당은 원자력 개발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FBR과 재처리에 대해서는 기독교민주동맹(CDU)과 의견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한 조정이 앞으로 원자

력정책의 관건이 되고 있다.

각 정당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견해는 여당인 기독교민주동맹(CDU/CSU)은 추진하는 편이고, 사민당(SPD)은 연방과 州, 立地點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예를 들면, FBR原型爐(SNR-3000)의 입지점인 노르트라인·웨스트·팔렌주는 연료장전·운전의 신청을 각하시키고 있는 한편, WA-350재처리공장이 있는 바이에른주와 폐기물저장시설의 고아레벤측은 SPD이지만 추진의 입장에 있다.

1987년 8월 방사성폐기물 수송회사인 트랜스 뉴클리어社에서 증수회사건이 발각되어 3명이 체포되고, 1명이 구류중 자살했으며, 또 동사가 고농축우라늄을 파키스탄과 리비아에 밀수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기사가 보도되어 단순한 증수회사건에 그치지 않고 핵비확산체

제를 동요시키는 국제적인 스캔들로 발전,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8년 5월 슈레스비히·홀슈타인주에서 주선거가 실시되어 선거 전부터 원자력발전의 폐쇄를 공약하고 있던 사회민주당(SPD)이 대승함으로써 동주에서는 원자력대책이 긴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서독에서는 프랑스와 같이 중앙집권적이지 않으나, 지방분권적이어서 각주 독자적 주법이 있으며,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허가권, 안전 및 환경문제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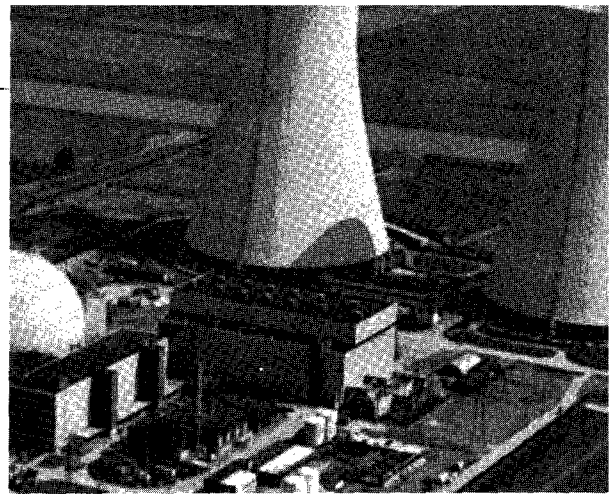
체르노빌사고로 인해 환경과 식품에 준 오염은 크며, 바이에른지방에서는 비가 내려 특히 심했다. 방사능방호위원회에서는 우유, 야채, 버섯에서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섭취금지조치도 취했지만, 현재는 안정되어 있다.

서독에서는 석탄이 풍부해서 국민도 석탄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지만, 탄산가스에 의한 온실효과가 있어서 원자력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사회민주당(SPD) 등에서도 대체에너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독에서 원자력문제의 예측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다.

反對運動

원자력에 대해서는 녹색당을 중심으로 환경보호라는 관점에서 반대운동이 강력했다. 주선거에서 여야당의 세력균형을 이용하여 녹색당이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재처리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바카스돌프에서는 공청회를 둘러싼 반대운동이 특히 심했다.

녹색당 내부의 현상화는 원리원칙과 현실노선과 사이에 대립이 표면화되고 있으며, 이 대립이 장기화될 것 같다. 녹색당의 창당정신은 환경보호였으나, 각 정당이 환경보호정책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최근 그 존재의



▲서독 Grohnde 原電 近경.

의의를 잃고 있는 중이다. 체르노빌규모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세력을 잃어 다음의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의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BMU)도 있다.

서독에서의 반대운동은 주부와 미혼의 젊은 여성, 젊은 프로테스탄트의 목사에게서 많다.

其 他

일본의 잡지「디스·재팬」에 게재된 “고아레벤 부근에서 체르노빌에 의한 오염 表土를 모아 처분하고 있다”는 사진기사는 옛날부터 겨울에 소의 사료로 하기 위한 건조를 비닐을 씌워 발효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잡지「기술과 인간」에 게재된 “베를린자유대학·인간유전연구소의 발표에 의해 기형아의 출생률이 5배로 늘었다”는 기사에 대해서 서독의 방사능방호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과학적으로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뮌헨방사능연구소의 박사에 의해 방사능영향에 의한 거대한 민들레”의 기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시하고 있다.

체르노빌사고와 관련하여 早産兒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방사능 때문이 아니라 방사능에 대한 걱정과 심리적 불안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의학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PA對策

고아레벤의 BLG(관리회사)에서는 고아레벤 마을의 중심에 있는 유치원 건물에 인포메이션 하우스를 상설하여 週 4 회 개방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의 여론지도층(의사, 의원, 목사 등)에게 정기적으로 정보를 보내고 있다.

고아레벤부근에서 예상하지 못한 농작물의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은 법률로 만들 수 없다」는 말을 확신하고 있다.

고아레벤의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은 갯도굴 착공사중 사망사고가 있어서 공사를 일시중지하고 있는 중이나, 곧 재개될 예정이다.

西獨에서의 輿論調查 結果

서독원자력산업회의(DATF)는 1988년 7월 트랜스뉴클리어사건후 서독에서의 원자력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여론조사는 DATF가 아렌스바하여론조사 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한 것으로서 트랜스뉴클리어社의 불상사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에 대한 서독국민의 기본적인 태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이 사건에 의해서 원자력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은 국민 전체의 불과 6%에 지나지 않으며, 38%는 그때까지의 견해를 견지하고 있으며, 또 45%는 사건이 자신의 의견에 영향을 미친 일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1) 태도변화의 주관적 평가(대상 : 국민전체)
(질문 1) 이 사건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國民全體 (%)	原子力의 利用 (%)		
		長期	서서히 增大	急速하게 增大
1. 根本적으로 바뀌었다	6	3	6	6
2. 態度가 강해졌다	38	4	26	63
3.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45	79	58	23
4.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것도 듣지 못했다	11	14	8	8

트랜스뉴클리어사건은 매우 큰 주목을 받아 국민의 89%가 사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조사에 착수한 계기가 된 것이 트랜스뉴클리어社 수뇌의 자진신고라는 것을 매스컴의 보도를 통해 안 것은 불과 27%에 불과하였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회사의 관리직, 고급관료 및 노동조합원은 일반국민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었음이 밝혀졌는데, 이 계층 사람들은 약 40%가 자진신고를 알고 있었다.

트랜스뉴클리어사건에 의해서 원자력관계의 과학적·기술적 문제의 해결가능성에 대한 신뢰는 극히 조금 밖에 손상받지 않았다. 오늘날 서독 국민의 30%는 대단히 큰 신뢰를 하고 있으나, 38%는 어느 정도의 신뢰 밖에 갖고 있지 않으며, 22%는 대체로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

(表 2) 자진신고에 관한 지식(대상 : 국민전체)
(질문) 이 사건은 트랜스뉴클리어社 수뇌의 자진신고에 의해서 알려졌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國民全體 (%)	勞動組合員 (%)	管理職 / 官僚 (%)	事件에 대한 關心 (%)		
				높다	중간 정도	낮다
1. 알고 있었다	27	41	42	39	30	16
2. 처음 들었다	64	58	50	61	70	84
3. 이 사건에 대해 듣지 못했다	9	1	8	*	*	*